

#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sup>1</sup>

김금미<sup>†</sup>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집단의 지위가 집단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집단범주화와 지위관련성이 기여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 목적을 위하여 2(집단의 지위 : 고/저)×2(집단범주화 : 집단경쟁/개인경쟁)×2(지위관련성 : 지위유관/지위무관)의 완전무선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104명의 대학생에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집단의 높은 지위와 관련되거나 혹은 관련되지 않은 차원일 때 모두 개인경쟁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편애를 보이지만, 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일 때만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이 분배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들은 집단범주화나 지위의 관련성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내집단에 배분하였으나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와 관련없는 차원에서만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서 삼원상호작용에 관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과 아울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연결지어서 의의를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 내집단편애, 집단지위, 사회정체성이론, 집단범주화, 지위관련성, 내외집단분배

본 연구는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유리한 반응을 보이는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서 내집단에 자원을 분배할 때, 집단범주화 수준과 아울러 집단의 지위와 분배 차원의 관련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는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평가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한덕웅, 인쇄중, Karasawa, 1991; Tajfel, 1978, 1982).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집단간 사회비교의 결과로 '내집단편애'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Hogg & Abrams, 1990, 48-54쪽; Karasawa, 1991). 내집단편애란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호의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내집단의 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내집단에 더 호의적인 정서, 평가, 행동의도 및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 집단의 성원이 외집단과 비교하여 더 좋은

<sup>1</sup> 이 논문은 김금미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sup>†</sup> 교신저자 : 김금미(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imttokki@hanmail.net)

방향으로 내집단을 평가하는 이유는 긍정적 자기상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조건을 해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들을 보면 이론이나 실증연구의 결과들에서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내집단편애나 혹은 외집단편애 현상을 집단간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가설을 제안하고, 실증연구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나타나는 내외집단편애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범주화 수준과 아울러 집단의 지위가 분배의 차원과 관련되는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 분배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들이 설정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중요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과제와 중요한 가설이 도출된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다.

#### 집단의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

Tajfel과 Turner(1986)는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집단간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본다. 이들은 집단의 지위를 평가 차원에서 비교한 집단의 상대적 위치라고 정의했다. 이들이 제안한 지위의 정의에 따라서 이후 연구들(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 Wilke, 1992; Sachdev & Bourhis, 1987; Spears, Doosje, & Ellemers, 1997)에서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수성 혹은 열등성으로 집단의 지위를 조작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이 관점에서 지위를 정의하기로 한다.

Tajfel과 Turner(1986)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유리하도록 지위의 차이를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내집단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별을 보이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내외집단에 자원을 분배할 때 지위에 따라서 과연 어떤 분배원칙을 선호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 관점의 한계를 집단의 지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집단간 관계에서 높은 지위를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집단의 사회정체성을 더욱 우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낮은 지위의 외집단을 차별하

려고 한다. 만약 외집단에 차별을 보이는 상황이 합법성을 지닌다면 외집단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이미 높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은 이미 외집단보다 우월하게 집단간 지위의 차이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고지위 집단의 성원이 외집단에 대해서 집단간 차별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나은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 이 집단간 지위의 차이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다(Ellemers, 1993).

Ellemers 등(1992)의 연구에서 집단의 상대적 규모, 지위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을 조작하여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집단 구성원으로서 집단을 가치있다고 보는 정도를 알아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집단간 경계가 모호하여 집단간 침투가 가능할 때 소수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성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또한 Mullen, Brown 및 Smith(1992)의 통합분석(meta analysis) 결과와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 Kortekaas, & Ouwerkerk(1999)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이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보다 더 심한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한편 낮은 지위를 지니는 집단의 성원이 보이는 내집단편애 혹은 외집단 편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하다. 내집단이 낮은 지위일 때 내집단에 불리한 지위의 차이를 교정하여 내집단의 지위를 긍정적 방향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내집단의 나쁜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은 외집단에 불리한 방향으로 차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집단에 비해서 내집단의 열등한 지위가 객관적이고 합당한 준거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인정하여 이른바 내집단에는 불리한 '외집단편애'를 표출할 수도 있다(Brewer & Brown, 1998; Brewer & Miller, 1996, 91~92쪽). 지위의 차이가 합법적일수록 더욱 외집단편애를 보일 수 있다(Ellemers, 1993). Reichl(1997)의 실증연구의 결과에서도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이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보다 덜 차별적이었다.

실제로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내집단의 낮은 지위가 자신의 정체성에 명확히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이 지위를 지니게 된 배경에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강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집단간 분배나 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에 비해서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이 내집단편애를 보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명백한 집단간 지위 차이에 위배되는 분배는 개인이 지니는 내면의 공정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편애를 보이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집단의 지위와 집단범주화에 따른 내집단편애

앞에서는 내집단편애 현상이 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내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여러 관점에서 해결이 모색되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편애가 지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자기범주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집단범주화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인간은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고 (Karasawa, 1991),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지니고 있는 높은 지위는 자신의 향상을 경험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집단범주화의 수준에 관계없이 내집단편애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집단의 범주화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경쟁을 시켜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게 된 경우에는 집단간 경쟁이 약화되고 집단범주화가 낮아져서 개인 범주화에 가깝게 되므로, 내집단의 낮은 지위에 불구하고 집단간 관계에 기초하여 내집단에 분배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개인정체성이 현저해지므로 개인적인 향상전략을 쓸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집단간 경쟁을 시키는 경우에는 외집단에

대해서 더욱 경쟁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Insko, Hoyle, Hong, Slim, Dalton, Lin, Ruffin, Dardis, Bernthal, & Schopler, 1987). 그러므로 집단정체성이 높아져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이 집단범주화가 높을 때 보이는 내집단편애는 지위관련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성원들은 지위와 관련이 높은 차원보다 지위에 관련이 낮은 차원에서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분배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에 따른 내집단편애

앞서 내집단의 지위와 내집단편애의 관계를 다룬 집단간 관계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위와 관련이 높거나 혹은 낮은 차원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일관되지 않고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을 정의하는 중요한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Paéz, Martínez-Taboada, Arróspide, Insúa, & Ayestarán, 1998, 214쪽), 다른 상황에서는 외집단의 우월성을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단간 분배의 차원이 지위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내집단편애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의 지위에 따라 지위관련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는 내집단편애를 보일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정당화가 가능하므로 내집단편애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집단간 관계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높더라도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집단간 사회비교를 유발하면 내집단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내집단의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과 오감을 표출하게 된다(Mackie & Smith, 1998). 또한 지위가 높으면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높으므로 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도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내집단편애를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은 외집단과 사회비교하는 차원의 관련성에 따라서 내집단 분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내집단의 지위가 낮지만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되면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분배할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표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비록 내집단의 지위가 외집단보다 낮더라도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자원을 분배할 때는 집단의 낮은 지위가 자원의 분배에서 합당하고 객관적인 준거가 되므로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분배할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덜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내집단의 지위가 외집단보다 낮더라도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높은 내집단편애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없는 차원에서 자원을 분배하도록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위 관련성의 개념 정의나 조작 방식에서 연구자마다 서로 달라서 결과도 일치하지 않고 일관된 해석도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Mullen 등(1992)의 통합분석에서 지위(고/저)와 지위관련성(고/저) 그리고 범주화의 실제성(실제집단/인위집단)의 세 요인들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달라지는 현상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들과는 별도로 세 명의 평정자들에게 ‘집단의 지위와 평가 차원이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지’에 따라 관련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평가차원이 집단의 지위와 관련된다고 본 차원에서는 내집단편애가 높게 나타나고,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 차원에서는 “관대한” 외집단편애를 보였다(Mullen et al., 1992). 이는 연구 피험자들의 보고가 아니라 평정자가 평가차원과 집단지위의 관련성 정도를 평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Brewer와 Miller(1996, 95~99쪽)는 때로는 낮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이 높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보다 외집단에 유리한 분배를 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지위와 관련있는 평가 차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위와 관련성은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자체가 지위에 관련되는 지에 따라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Mullen 등(1992)은 지위의 관련성을 평가 차원이 집단의 지위와 얼마나 관련되는지로 정의하지만, Brewer와 Miller(1996, 95~99쪽)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집단의 지위와 얼마나 관련되는지로 정의하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실험연구들에서 지위의 관련성을 조작하는 방법들도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achdev와 Bourhis(1991)는 창의성 지능과제를 수행한 후 내외집단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집단의 지위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집단 수준에서 지위를 조작한 후 다른 창의성 과제에서 두 집단의 수행 수준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내/외집단 편향을 얻었지만 이 때 창의성 과제에서 내외집단의 수행 수준을 평정한 값은 집단이 창의성에서 지니는 지위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위의 관련성 조작 방식은 내집단의 독특성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자존심을 높히려는 동기를 함께 유발시켜서 가외변인의 혼입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Mummendey & Schreiber, 1983; Mummendey & Simon, 1989 참조). 왜냐하면 내집단편애를 통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자존심 추구 동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내집단의 지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창의성 차원과 동일한 차원으로 지위의 관련성을 조작하면 내집단의 독특성이나 자존심의 고양을 추구하는 동기가 유발되어서 이 가외변인이 내집단 편애나 외집단편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내집단 지위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차원과 집단 지위와의 관련성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차원이 서로 다르도록 하여 이 두 차원들이 독립된 조건에서 어떤 내집단편애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과 유사하게 Reichl(1997)는 먼저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사회적 합의가 최소화된 준거를 써서 집단을 구분하고, 별도의 과제를 사용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의 지위를 조작한 뒤, 그 과제와 관련되거나 혹은 무관한 준거에 의해서 보상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Reichl(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들의 지위를 조작한 후 내외집단에 보상을 할당하도록 할 때 보상을 할당하는 차원이 과제와 관련되거나 혹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여 단지 어구만을 다르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관련성을 조작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지위의 관련성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했으나 조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의도한대로 보상을 할당하

는 차원이 지위와 관련된다 고 피험자가 보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지위관련성을 실험변인으로 사용할 때 지위관련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지위관련성에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관련 특성이나 무관 특성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않은 특성으로 지각할 수 있다. 평가특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차이가 있으면 실험 결과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긍정부정의 비대칭 효과(positive-negative asymmetry effect : 돈과 같은 긍정적 보상의 할당에서 나타나는 내집단편애가 부담과 처벌 같은 부정적 결과를 외집단 성원에게 분배할 때 나타나는 차별과 다름을 보이는 효과, Bourhis & Gagnon, 2001)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Reynolds, Turner, & Haslam, 2000 참조)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차이가 없는 평가차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내집단 지위의 관련성을 정의하고 실험에서 조작할 때 여러 한계를 지니는 사실을 고려하여 지위관련성의 특성을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운데에서 설정하고 이를 집단의 지위와 독립되게 조작하여 내외집단에 대한 보상의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적에서 먼저 피험자에게 의미가 없는 과제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과제의 수행 결과에 근거를 두고 내집단의 지위를 조작하기로 한다.

####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에 따른 내집단 편애

집단범주화의 수준이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상호작용에 서로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은 이미 획득하고 있는 높은 지위 때문에 정당한 근거만 있다면 내집단편애가 가능해진다. 이 때 집단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집단 경계가 특출해지므로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분배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모두, 개인간에 경쟁으로 인해 집단범주화 수준이 낮을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보일 것이다.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이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개인

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개인정체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인상관리 동기가 작동하게 되어 내집단편애를 비교적 덜 하거나 오히려 이타적인 아량도 보일 수 있다. 또한 지위에 관련있는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도 이미 지나게 된 고지위의 기득권을 상쇄하기 위해 내집단편애를 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단의 지위가 높은 성원들은 지위관련성에 관계없이 개인간에 경쟁을 하는 조건보다 집단간에 경쟁을 하는 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은 분배를 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반면 집단의 지위가 낮고 분배의 차원이 지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집단범주화에 따라서 분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한 성원의 경우에도 집단간 경쟁이 약화되어서 개인범주화에 가까워지면 분배의 차원이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조건에서도 내집단편애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몰입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집단의 지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내집단편애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Jetten, Spears, Hogg, & Manstead, 2000). 또한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는 지위가 낮은 집단인 경우에 집단정체성 역시 낮다면 내집단편애가 아니라 외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외집단편애를 보일 수 있다.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의 경우에 외집단편애가 나타나는 조건은 다음 두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외집단편애는 성원이 지위가 낮은 내집단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외집단을 선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집단이 지위가 낮더라도 집단정체성은 높은 상태로 유지한 채 이미 안전하게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외집단에 호의를 보임으로써 내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 반응일 수도 있다. 외집단편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전자라면 내집단보다 지위가 우세한 외집단에 보상을 더 많이 분배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라면 지위관련성에 따라 외집단편애를 보이는 전략 반응을 통해서 내집단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거나 혹은 내집단편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외집단편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내집단에 보상을 더 많이 분배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설명들 가운데 전자는 지위가 낮은 내집단에 대해서 성원이 낮은 사회정체성을 지닌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성원이 내집단에 대해서 높은 사회정체성을 지닌 조건에서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내집단의 낮은 지위를 현실에서 인정하고 내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집단편애를 보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차원에서 분배할 때 보이는 내집단편애도 같은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두 설명들은 모두 집단간 관계에서 낮은 지위에 처한 내집단에 대하여 성원이 각각 높거나 혹은 낮은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와 집단범주화 그리고 지위관련성에 따라서 내집단편애나 혹은 외집단편애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 나타나는 집단간 분배현상들을 가설로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집단의 과제 수행 결과가 외집단보다 나빠서 지위가 낮으면 부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조건에서 개인경쟁을 할 때는 개인정체화 수준이 높아지므로 집단의 지위와 상관성이 높은 차원에서 보상을 분배하면 내집단의 낮은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집단간 분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특히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하는 조건에서는 집단범주화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내집단편애가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성원의 집단범주화 수준이 높으면 자기 집단의 부적 지위가 더 특출해져서 위협을 느끼는데 특히 집단의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분배를 하는 조건에서는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내집단편애를 표현하기 좋으므로 내집단에 많은 분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지위와 상관성이 없는 차원에서 보상을 분배하는 조건에서는 개인경쟁을 통해 집단범주화가 낮을 때보다 집단경쟁을 통해 집단범주화가 높을 때 내집단편애가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서론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집단의 지위 주효과:**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지위가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

이다.

**가설 2. 내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이원상호작용효과:** 내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간에 내집단 분배에서 차이가 없지만,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유관조건보다 지위무관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가설 3. 내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

가. 내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① 지위유관조건에서는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고, ② 지위무관조건에서도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나.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① 지위유관조건에서 개인경쟁조건과 집단경쟁조건간에 내집단 분배에 차이가 없고, ② 지위무관조건에서는 집단경쟁조건에서 개인경쟁조건보다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 방 법

**실험절차:** 실험은 1) 집단범주화 조작 → 2) 창의성 과제 실시 → 3) 지위 조작 → 4) 지위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서 내외집단의 분배 순서로 진행되었다. 4명의 참여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각자 컴퓨터에 앉도록 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 실험의 목적이 '지각능력과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먼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하여 지각과제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흩어진 150~300개 점들을 4초 동안 보여주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점들의 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지각과제를 사용하여 내집단을 범주화하고자 개인의 지각유형을 과다추정자인 P(Q)유형과 과소추정자인 Q(P)유형으로 구분한다고 알려주었다. 개인이 속한 집단이 P유형인지 Q유형인지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내집단의 범주를 두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이 때 P유형 혹은 Q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유형만을 제시해 주고 실험참가자들이 각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집단 범주화 조작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그림 5개를 차례대로 30초씩 제시하고 각 그

림의 제목을 창의적으로 작명하여 1분씩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응답하도록 창의성 과제를 하였다. 그리고 과제를 마친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의성이 높은 제목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집단별로 알려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컴퓨터 자판에 익숙하지 못해서 미처 응답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채점 기준에 의해서 집단의 창의성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집단 성원이 완벽하게 잘 응답해야만 좋은 집단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약 10초 후에 실험에 참여한 전체 집단 중에서 각 집단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어서 지위를 조작하였다.

이어서 참여자와 함께 참가한 총 4명 가운데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을 한사람씩 지정하고 과제를 수행한 다른 사람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창의성과 관련이 높은 확산적 사고능력이나 혹은 관련이 없는 의리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나누도록 하였다. 그림의 제목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사 및 박사과정생 12명이 작명한 제목을 참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림과 함께 제시한 그림의 제목은 옆의 피험자가 응답한 결과가 아니었고, 사전에 준비된 제목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P, Q 집단 내에서 각각 상쇄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조작적검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 모두 8개 조건마다 13명씩 총 104명의 대학생(남자 71명, 여자 33명)을 무선할당하였다. 참여자는 S대학에서 심리학개론 수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인데 이들은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 2(집단의 지위 : 고/저) × 2(집단범주화 : 집단경쟁/개인경쟁) × 2(지위관련성 : 지위유관/지위무관)의 완전무선설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 :** 집단의 지위 가운데 높은 지위 조건에서는 '당신이 속한 P(Q) 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상위 21(19)%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상대 Q(P)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하위 19(21)%에 해당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지위가 높은 조건을 조작하였다. 낮은 지위 조건에서는 '당신이 속한 P(Q) 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하위 19(21)%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상대 Q(P)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상위 21(19)%에 해당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지위가 낮은 조건을 조작하였다. P집단과 Q집단의 명칭 및 19%와 21%의 지위는 실험 참가자마다 각각 순서를 상쇄하여서 제시하였다.

**집단범주화** 가운데 **집단경쟁조건**에서는 '창의성 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는 지금 실험에 참가한 4명 가운데 P집단이나 Q집단 중 더 잘한 한 집단에 속한 2명만 받게 되고, 더 못한 집단의 성원은 보너스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속한 P(Q)집단의 다른 성원이 창의성 과제를 잘 하거나 못하는데 따라서 당신이 보너스 점수를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Q(P)집단이 수행한 수준도 역시 당신이 속한 P(Q)집단이 보너스 점수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조작하였다. **개인경쟁조건**에서는 '창의성 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는 지금 실험에 참가한 4명 가운데 P집단이나 Q집단 소속과는 상관없이 더 잘한 순서대로 2명만 받게 되고, 더 못한 2명은 보너스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속한 P(Q)집단의 다른 성원이 창의성 과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당신이 보너스 점수를 받거나 못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Q(P)집단이 수행한 수준도 역시 당신이 속한 P(Q)집단이 보너스 점수를 얻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조작하였다.

**지위관련성** 가운데 **지위유관조건**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 능력은 매우 관련되어서 상관이 높다고 합니다. 즉, 대체로 창의성이 높으면 여러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고 창의성이 낮으면 같은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성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확산적 사고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실험에서 P(Q)집단의 1명과 Q(P)집단의 1명이 실험에 참여하여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보고 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확산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당신의 판단 결

과에 따라서 확산적 사고 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십시오'라고 지시하여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 조건을 조작하였다.

지위무관조건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의리있는 정도는 전혀 관련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대체로 창의성이 높거나 낮는데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의리있는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성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의리가 표현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실험에서 P(Q)집단의 1명과 Q(P)집단의 1명이 실험에 참여하여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보고 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당신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더 의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십시오'라고 지시하여 지위와 관련성이 없는 조건을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위에 관련된 특성은 확산적 사고 능력이 창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Albert & Runco, 1999)에 따라 선정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긍정부정 비대칭효과의 혼입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확산적사고능력(창조적이다)과 비슷한 특성을 지위무관 특성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의리있다'는 특성은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였다: 우선 한덕웅(1992)의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조사 결과에서 얻은 측정치를 참고하여 '창조적이다'와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이 비슷한 특성들을 10개 선택하였다. 이 특성에 대해서 대학생 15명이 '창의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에서 가장 관련이 없다고 평정한 '의리있다' 특성을 선정하였다. '창조적이다'와 '의리있다'의 두 특성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차원의 평정치는 다음과 같다, 남성성격에 대한 선호도(창조적이다  $M=6.19(SD=0.80)$ ; 의리있다  $M=6.33(SD=0.66)$ ), 여성성격에 대한 선호도(창조적이다  $M=5.88(SD=0.76)$ ; 의리있다  $M=5.86(SD=0.84)$ ), 남성성격 바람직성(창조적이다  $M=6.18(SD=0.85)$ ; 의리있다  $M=6.21(SD=0.80)$ ), 여성성격 바람직성(창조적이다  $M=5.74(SD=0.89)$ ; 의리있다  $M=5.71(SD=0.87)$ ).

**종속변인:** "P 집단"과 "Q 집단"에 속하는 익명의 두 성원에게 총 100점의 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이 점수를 사용하여 내집단편애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100점의 점수를 내집단과 외집단의 성원에게 나누어서 분배지에 각각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두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뒤 두 분배지를 각 참여자의 책상 앞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봉투에 넣도록 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익명으로 반응을 한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봉투 안에 미리 분배지를 몇 개 넣어놓고 피험자보다 앞서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의 응답이 이미 봉투 안에 들어 있어서 현재 참여자의 응답을 실험자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었다. 모두 5개의 그림에서 판단한 내집단 분배치들을 평균하여 개인의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내집단편애가 크다고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 점수의 수준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위관련성 조작에서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능력'은 관련되고 '의리있음'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는 참여자에게 심리적으로 의미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많이 분배했음수록 더 내집단편애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결과 및 논의

###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집단지위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이 속한 집단의 창의성 과제 수행 결과는 다른 집단보다 얼마나 좋았습니까?'에 대하여 '1(매우 적게)'~'4(중간)'~'7(매우 많이)'의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측정치들을 각각 2(집단의 지위)×2(지위관련성)×2(집단범주화)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집단의 지위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집단의 지위가 높은 조건의 참여자들( $M=4.77, SD=1.16$ )은 지위가 낮은 조건의 참여자들( $M=3.04, SD=1.31$ )보다 자신들이 더 잘 했다고 응답했다,  $F(1, 96)=77.88, p<.0001$ . 따라서 집단의 지위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집단범주화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에게 주는 점수 이외에 누구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지에 대해 ① 더 잘한 집단에 속한 2사람 ② 잘하는 순서로 2사람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응답 결과에서 집단범주화가 높은 조건에 해당하는 52명은 모두 더 잘한 집단에 속한 2사람이라고 응답했고, 집단범주화가 낮은 조건에 해당하는 52명은 모두 잘하는 순서로 2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제로 집단범주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범주화가 높은 조건과 집단범주화가 낮은 조건간에 다음 문항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 성원들과 연대감을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 성원들과 친밀감을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P(Q)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 성원들과 일체감을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Q(P)집단보다 P(Q)집단 성원들에 대한 애착이 더 컸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의 성원들과 가깝게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P(Q)집단의 성원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했다' '이 실험에 참가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의 성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0(매우 적게)~3(중간)~6(매우 많이)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하여 집단범주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범주화가 높은 조건 ( $M=3.18, SD=0.89$ )에서 집단범주화가 낮은 조건 ( $M=2.61, SD=0.76$ )보다 집단범주화 요인의 점수가 더 높았다,  $F(1, 96)=3.96, p<.05$ , 이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4였다.

지위관련성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배를 할 때 과제를 한 사람의 확산적 사고능력에 따라 분배가 얼마나 좌우되었는지'에 관한 응답과 '분배를 할 때 과제를 한 사람의 의리에 관한 평가가 분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역전)에 관한 응답을 평균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집단의 지위유관조건의 참여자들( $M=4.62, SD=1.25$ )은 지위무관조건의 참여자들( $M=4.01, SD=1.23$ )보다 확산적 사고능력(의리에 관한 평가)에 따라 더(덜) 분배에 영향받았다고 응답했다,  $F(1, 96)=10.06, p<.01$ . 다른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따

라서 지위관련성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능력, 혹은 창의성과 의리있음의 관계에 관한 심리적 의미 부여를 알아볼 수 있는 점에서, 단순히 관련성에 관한 지식을 질문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

내집단과 외집단에 5회에 걸쳐서 분배한 점수들을 사용하여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를 평균하여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각 조건별로 내외집단에 각각 분배한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집단의 지위: 고/저)×2(집단범주화: 집단경쟁/개인경쟁)×2(지위관련성: 개인경쟁/집단경쟁)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의 지위가 지위가 높으면 낮을 때보다 내집단에 점수를 더 많이 분배했다,  $F(1, 96)=12.64, p<.001$ . 그러므로 집단의 지위에 따른 효과를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 과제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평균 상위 20%로 우수했기 때문에 내집단에 더 분배하는데 당연한 근거로 작동하여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이 저지위일 때보다 고지위일 때 내집단편애의 분배가 정당화되기 쉬운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집단간의 지위를 조작하여 내집단편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 등(1999)의 실증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Mullen 등(1992)의 통합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과 낮은 지위 집단 성원이 모두 내집단편애와 외집단 편애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내집단편애를 보일만큼 지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단이 낮은 지위일 때보다 높은 지위일 때 더 내집단편애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1, 96)=19.07, p<.0001$ . 이에 따른 단순주효과분석 결과에서 고지위조건일 때는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F(1, 51)=0.25, ns$ , 저지위조건에서는 지위무관조건일 때와 비교

해서 지위유관조건일 때 내집단에 더 적은 점수를 분배했다,  $F(1, 51)=20.40, p<.001$ .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이는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이 지위와 관련없는 분배차원에서 내집단편애를 보이기가 용이하므로 지위에 따른 자존심의 훼손을 상쇄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Mullen 등(1992)의 통합분석에서 내집단에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내집단편애가 강했고, 중요하지 않은 속성에서는 “관대한” 외집단편애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관된다(Mullen et al., 1992). 그러나 이 상호작용의 원인은, Brewer와 Miller(1996)의 주장과 같이, 집단의 범주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지위에 관련없는 상황에서 낮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은 오히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집단 탈퇴의 동기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가 유의하였다,  $F(1, 96)=13.97,$

표 1. 각 조건별로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고 지 위		저 지 위		전 체
	지위유관	지위무관	지위유관	지위무관	
집단경쟁	54.57 (6.69)	52.43 (5.95)	40.92 (7.19)	60.77 (8.09)	52.17 (9.95)
개인경쟁	51.49 (7.10)	51.86 (5.84)	43.65 (5.68)	45.72 (8.28)	48.18 (7.53)
전 체	53.03 (6.94)	52.15 (5.78)	42.28 (6.50)	53.25 (11.10)	50.18 (9.01)

\* ( )안은 표준편차

표 2.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지승합	평균지승	F값	유의도수준	$\omega^2$
지위(A)	1	604.81	604.81	12.64	0.0006	0.07
집단범주화(B)	1	414.40	414.40	8.66	0.0041	0.04
A × B	1	122.34	122.34	2.56	0.1131	0.01
지위관련성(C)	1	660.03	660.03	13.80	0.0003	0.07
A × C	1	912.15	912.15	19.07	<.0001	0.10
B × C	1	378.48	378.48	7.91	0.0060	0.04
A × B × C	1	668.12	668.12	13.97	0.0003	0.07

$p<.001$ .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은 저지위조건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순상호작용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대로 저지위조건에서 집단범주화와 지위관련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96)=21.45, p<.0001$ .

이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고지위 조건에서 가설과 일관되게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에서 모두 집단경쟁조건과 개인경쟁조건간에 내집단 분배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지위조건을 포함하여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고지위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된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집단경쟁조건과 개인경쟁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96)=1.50, ns$ . 또 고지위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되지 않은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한 경우에도 집단경쟁조건과 개인경쟁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96)=.05, ns$ . 이는 가설 3-가의 ① 가설과 ② 가설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고지위 집단의 성원들은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에서 모두 집단범주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동등분배의 공정성규범이 강하게 작용하여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들에게 의미가 적은 최소집단 상황에서 내집단이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되었으므로 동등분배의 공정성규범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지위관련성 수준에 관련없이 집단범주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저지위조건에서도 지위에 관련있는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집단경쟁조건과 개인경쟁조건에 따른 분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96)=.88, ns$ . 그러나 저지위 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되지 않은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할 때는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했다,  $F(1, 96)=26.98, p<.0001$ .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가설 3-나 ① 가설과 ②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집단이 저지위에 속하면 개인경쟁조건일 때는 비교적 개인정체화되므로 집단의 지위에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하는지에 관계없이 낮은 내집단 분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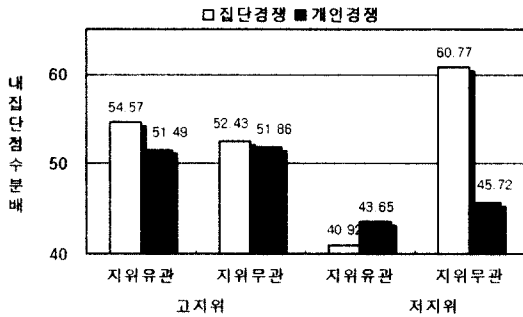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지위관련성에 따른 점수 분배의 삼원상호작용

보이지만, 집단간 경쟁 상황일 때는 집단의 지위에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집단의 정적 자존심 추구의 동기가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므로 내집단 성원에게 분배를 더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Brewer와 Miller(1996)가 집단정체성에 따라서 집단의 지위가 내집단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편애적인 분배는 조건간에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내집단편애적인 분배에 관련하여 형평적인 기준(이 연구의 경우에는 지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20 : 80)과 동등한 기준(50 : 50)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제시해 준 상위 지위의 평균점인 80점과 20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조건의 응답 평균이 약 40점~60점에 위치하므로 형평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고지위 성원은 모두 외집단편애적이고 저지위 성원은 모두 내집단편애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참여자들이 공정성의 기준을 50 : 50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에는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일 때 더 내집단편애적이라는 삼원상호작용의 일부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학점이 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실험상황으로 볼 때 분배 결과가 알려지지 않는 사적인 응답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더욱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실험상황에서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는 상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동등규범을 사용하여 나타났을 수 있다. 이 실험의 대상인 대학생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공정성 규범의

적용을 받은 학생들이어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이므로 성인 사회의 남녀 집단이나 어린이들에게 실시했을 때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들이 분배의 준거점을 무엇으로 보는지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동등규범이 현저한 이유를 최소집단상황에서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 및 집단범주화가 내집단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데에 귀인할 수도 있다. 비록 집단범주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집단 상황은 개인에게 의미가 없는 경계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상황이므로 형평분배보다는 동등분배가 공정성규범으로 작동하기 쉽다. 사회정체성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소집단상황에서 내집단편애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데 Mullen 등(1992)은 통합분석 결과에서 범주화의 실재성 수준, 즉 실험실에서 범주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 혹은 실제 집단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높은 지위 집단과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의 내집단편애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므로 장래에는 예를 들어 남녀 집단이나 지역에 따른 범주와 같은 실제 집단 범주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한 경우에도 최소집단상황에서 나타났던 집단의 지위 및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위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논의하면서 지위에 관련된 정도를 다르게 조작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Reichl(1997)은 평가속성의 지위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위유관속성'과 '지위무관속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은 지위와 관련된 측정치보다 관련되지 않은 측정치에서 더 내집단편애적이었고,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은 반대였다. 이 때의 관련속성은 집단의 지위에 관련되므로 동시에 집단에 중요하기도 하다. 지위관련성에 관련하여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중요성과 지위관련성의 혼입이다. Mullen 등(1992)은 그의 연구에서 지위관련성에 대해 중요성과 지위관련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요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관련되는가와, 개인이 환류를 통해 지니게 된 지위가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독립적으로 조작하여 다루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을 지닐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 성인들보다 덜 고정관념적이고, 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남녀평등의식도 높으며,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이외의 집단에 같은 연구를 하면 더 내집단편애적이고 덜 공정한 분배를 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의 지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이 비교적 높은 조건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ajfel(1982)의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외집단의 지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성 혹은 합법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정당성이 낮다면 지위와 관련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집단편애를 보일 근거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차 집단간 관계에서 지위의 안정성, 집단경계의 침투가능성과 같은 변인들이 지위가 내집단편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한덕웅(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권 1호, 147-171.
- 한덕웅(인쇄중). 집단행동이론.
- Albert, R. S., & Runco, M. A. (1999). A history of research on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s.),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his, R. Y., & Gagon, A. (2001).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In R. Brown & S. L. Gaertner(Ed.),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pp. 89-111). Blackwell.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and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554-594). McGraw-Hill.
- Brewer, M. B., & Miller, N. (1996). *Intergroup relation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4, pp. 27-57). Chichester: Wiley.
- Ellemers, N., Doosje, B.,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unter, J. A., Platow, M. J., Howard, M. L., & Stringer, M. (1996).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evaluative bias: Realistic categories and domain specific self-esteem in a conflict sett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631-647.
- Insko, C. A., Pinkley, R. L., Hoyle, R. H., Dalton, B., Hong, G. Y., Slim, R. M., Landry, P., Holton, B., Ruffin, P. F., & Thibaut, J. (1987). Individual-group discontinuity: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250-267.
- Jetten, J., Spears, R., Hogg, M. A., & Manstead, A. S. R. (2000). Discrimination constrained and justified: Variable effects of group variability and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329-356.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relations :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5, 499-529.
- Messick, E. M., & Mackie, D. (1989).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45-81.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Mummendey, A., & Schreiber, H. J. (1983). Better or just different? positive social identity by discrimination against, or by differentiation from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89-397.
- Mummendey, A., & Simon, B. (1989). Better or different? III : The impact of importance of comparison dimension and relative in-group size upon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171-200.
- Paéz, D., Martínez-Taboada, C., Arropide, J. J., Insúa, P., & Ayestaran, S. (1998). Constructing social identity : The role of status, collective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perception and social behaviour. In S. Worchel(E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pp. 211-229). Thousand Oakes, Ca, US : Sage Publications, Inc.
- Reichl, A. J. (1997). Ingroup favouritism and outgroup-favouritism in low status minimal groups : Differential responses to status-related and status-unrelate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617-633.
- Reynolds, K. J., Turner, J. C., & Haslam, S. A. (2000). When are we better than them and they worse than us? A closer look at social discrimination in positive and negativ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4-80.
- Sachdev, I., & Bourhis, R. Y. (1987). Status differentials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Sachdev, I., & Bourhis, R. Y. (1991). Power and status differentials in minority and majority group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24.
- Spears, R., Doosje, B., & Ellemers, N. (1997). Self-stereotyping in the face of threats to group status and distinctiveness: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538-553.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Worch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sup>nd</sup>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Van Knippenberg, AD F. M. (1984). Intergroup differences in group perceptions, In H., Tajfel (Ed.), *The social dimension : European development in social psychology*(vol. 2, pp. 560-578). NY: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Effects of Group Status, Group Categorization and Status-relevance on Ingroup Favouritism**

**Keum-Mi Kim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group categorization and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status and in-group favouritism through a laboratory experiment.

A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of among group status, group categorization, and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were hypothesized.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when group status is high, in-group favouritism would be stronger in the intergroup competition condition than that of the interpersonal competition condition regardless of the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dimensions. In contrast, when group status is l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 categorization conditions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status-relevance -- namely that in the status-irrelevance condition in-group favouritism would be stronger in the intergroup competition condition than in the interpersonal competition condition, but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 categorization-intergroup and interpersonal competition-conditions in the status-relevance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partial support for the three-way interaction hypothesis supporting only the predictions regarding the low status condi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words: ingroup favouritism, group status, social identity theory, group categorization, status-relevance, reward allocation**

원고 접수 : 2002년 6월 29일

심사 통과 : 2002년 8월 2일